

§ 교 회 목 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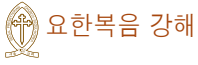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주님이 가시는 곳

(요 7:32-35)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신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도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대교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위하여 해마다 대제사장을 임명함으로 대제사장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성전 예배와 세금 문제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요 7:33)

### 1. 예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내 아버지께로 갈테니 조금 기다리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6개월이나 더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가게 됩니다.

### 2. 예수님은 미래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저들과 3년이나 동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3년 동안이나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그로부터 40년의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요 7:34).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날"(고후 6:2)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약속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에 가장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성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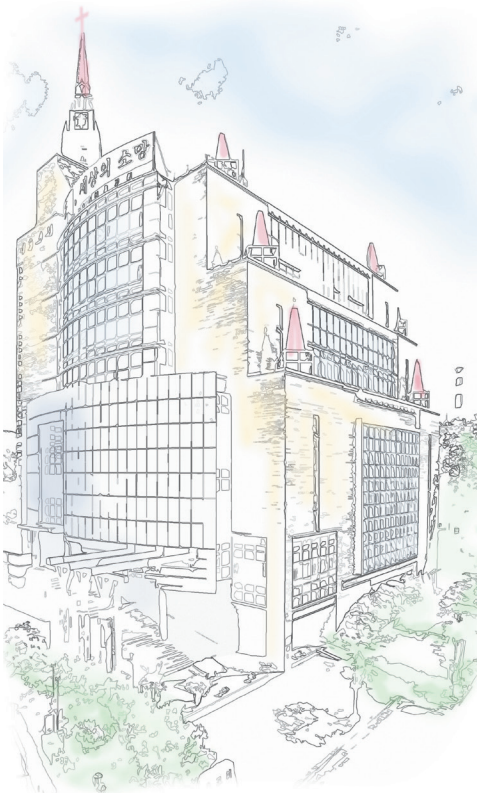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 자리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 3. 예수님은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요 7:34)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땅 위에서, 세상에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적 본성으로 하늘에 영원히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더불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교제로 들어가 초자연적인 위치에 계시게 됨으로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에 매어있는 인간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뿐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시간과 물질세계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그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분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21 사명자대회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2021. 10. 10(주)-11. 28(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22(월)-11. 27(토) 새벽 5:00-6:00  
강사 : 손달익 담임목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여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1 사명자대회가 10월 10(주일)부터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매일 교회성경통독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한다. 특별히 2021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1인 1사랑의 실천을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21 성경암송대회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2021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0월 31일(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임



### 2021 성경암송대회

## 우리, 성경암송대회 나가요



박상훈 집사  
(14교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항상 수상자들이 앞이나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다, 이번엔 저도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장의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김진달 집사님께서 다섯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각자에게 정해진 부분만 암송하면 된다고 성경암송대회에 함께 참여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답변은 했으나, '아직 시간이 넉넉하지' 하는 생각

에 저에게 정해진 요한계시록 1장을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이자는 말씀에 그저 교체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참석했다가, 기도 후 난데없이 맡은 부분을 암송해 보라는 말씀에 앞 부분을 더듬더듬 암송하고, 뒷부분은 불러주는 것 읽는 수준으로 진땀을 빼며 마무리 하고 나서야, 부끄러운 마음에 성경 읽어주는 여플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들어보기도 하고, 아픈 머리 부여잡고 속도를 내보기도 하였습니다.

김진달 집사님, 백도환 집사님, 양동덕 집사님, 김승록 집사님 이렇게 네 분 집사님들과 성경암송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칭찬과 격려에 기뻐하며 힘을 얻고, 이 귀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되게 하시므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 수기 및 간증 공모 -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김은호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피택집사·권사 교육을 받으며

##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김지수 피택집사 (13교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답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먼저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 피택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11주에 걸쳐 매주 주일 오전에 올

려주신 영상 강의를 청취하고, 주말에 소감문을 작성하여 담당 목사님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매주 새벽기도 2일 치를 듣고 경건 생활일지를 작성 제출하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공중 예배기도문 작성, 설교 요약 등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성경 지식과 신앙적 믿음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제1강 "부르심과 사명"에서 저는 서울교회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2강 "장로교 요리문답"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체계를 알게 되었고, 제3강 "직분자와 전도"에서는 실제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4강 "직분자와 리더십"에서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인격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는 결심과 각오를 하였습니다. 제5강 "직분자와 영성"에서는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하는 삶, 헌금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제6강 "구약개설"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문제 풀이는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며 문제를 푸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성경구절을 외워서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피택자 교육 과정은 저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피택집사, 권사님들께서도 잘 준비되셔서 서울교회 회복과 부흥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 저는 빛진 자입니다



김준목 피택집사 (9교구)

1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을 통해 서울교회의 지난 설교를 하나하나 들던 저는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처음 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새 가족부를 거쳐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루하루가 세상을 얻은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불만으로 어색함과 긴장만이 흐르던 저의 가족은 각자의 방문이 열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맴돌고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은 저희 가족을 늘 격려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던 저에게 '종교개혁 500주년' 재정담

당이라는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으로 저녁식사를 준비해 기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인 헌금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겁쟁이고 나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으로 아픔을 겪을 때, 늘 말씀 속에 사랑으로 교제하던 성도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감당하기 어려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방황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과 권유로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이 묻어있는 서울교회로 두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회는 피택집사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에서 허리띠를 묶고 새 발걸음을 떼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택집사 교육 과정은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혼란스런 세상에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복음에 빛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빛진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탕자와 같은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저의 남은 삶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으

서울교회 사명자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피택권사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미옥 피택권사 (1교구)

부름받음을 큰 은혜로 여기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택권사 훈련으로 교육 보고서, 경건 일지, 믿음의 이야기-신·구약 성경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남은 교육도 잘 완수하여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권사로서의 마음을 다지며 예수님에 대한 순종적인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되기를 소원합니다.

(4면에 계속)

## 피택권사 교육을 통하여...



박혜정 피택권사 (13교구)

먼저,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인 권사로 피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 여 년간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새벽이면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베텔 하우스로 달려가셨던 선배 권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음식이었기에 협소한 공간에서도 담소를 나누며 즐기던 주일 오찬이 더 풍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의 노고와 땀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흠여지지 않는데 큰 역할을 했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분쟁 기간 중 지방 근무자로 발령받았다는 핑계로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몸소 본을 보이시는 선배 권사님들의 뒤를 이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충성되어 섬기기를 다짐해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선한 방법으로 작

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 근무 중에도 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고등부 교사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고, 피택 권사 오리엔테이션도 동영상으로 시청하여 이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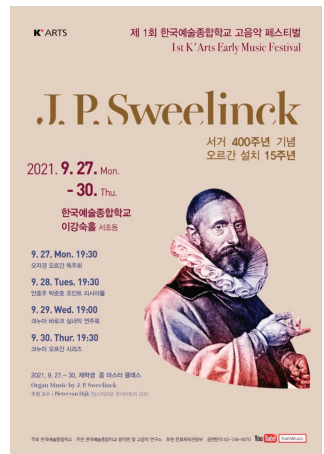
피택집사·권사 교육이 대면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 주일 동영상으로 올려 주시는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경건일지 작성은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강 “부르심과 사명”을 시작으로, 장로교 요리문답, 직분자와 전도, 직분자와 리더십, 직분자와 영성, 구약개설까지 총 6회차의 온라인 강의를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특별히 영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심은 자기를 위해 채우는 것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자존심까지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잘 비우는 사람이 바로 영성가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며,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나의 유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영적인 삶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5번의 강의 및 당회고시 등 교육 과정을 통하여 피택권사로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동정



■ 조인트 리사이틀 : 주일 찬양예배 오르간 반주를 담당하는 안호주 성도의 조인트 리사이틀이 9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홀에서 있다.

■ 떡 제공 : 김동준 집사 · 이신혜 집사 가정 (봉사에 감사하며)

##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시작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9월 26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10월 3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10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7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24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 회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27일	월	마 16-18		시 137-150	
9월28일	화	마 19-21		잠 1-6	
9월29일	수	마 22-23		잠 7-12	
9월30일	목	마 24-25		잠 13-18	
10월1일	금	마 26		잠 19-24	
10월2일	토	마 27-28		잠 25-31	
10월3일	주일	막 1-3		전 1-12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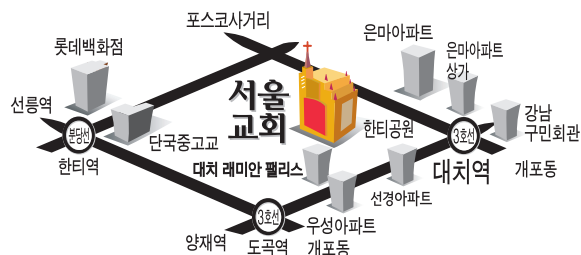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0월 10일(주일) 시작되는 2021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예로 힘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